



재래종의 산란수는 조선 말엽의 기록으로는 연간 70개 정도라 하였고 1900년대 초에 조사된 기록을 보면 6~7개월 자란 뒤에 초산하여 산란수는 연간 80~120개 정도이며, 알 무게는 약 45g 정도로 50g을 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점등을 실시할 경우 연간 180개 내외의 산란이 가능하며, 알 무게는 52g 정도로 타원형의 담갈색 알을 낳습니다. 재래닭 자체는 비육(肥肉)이 잘되지는 않지만 고기의 근육은 기름이 적고 줄깃줄깃한 육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닭고기 특유의 풍미와 맛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식성에 맞는 기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